

BIBLE A MONTH CLUB

매달 한 권의 성경을...

BIBLE A MONTH CLUB!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는 정치, 종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서번역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블 어 먼쓰 클럽
(Bible a Month Club)은
매월 정기적으로 성서헌금을
약정하여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 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 사항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2-2103-8833~4 팩스: 02-2103-8896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 www.bskorea.or.kr

2012년 봄 제58권 1호

성서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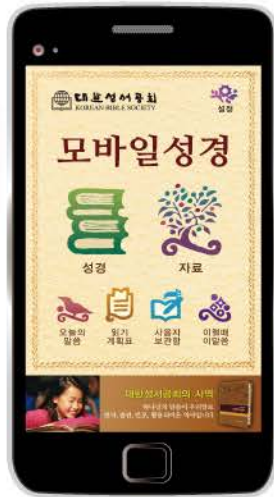
첫 번역 성경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냅시다!



해설이 풍부한 대한성서공회 모바일성경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성경역본 **개역개정+새번역+공동번역개정+개역한글+국한문 성경**
+KJV+ASV+GNB+CEV / ESV (별도판매)

성경해설 관주, 난외주, 절해설, 단락해설, 성서 속의 물건들 등



대한성서공회 모바일성경의 특별함!

-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말씀, 이럴 때 이 말씀, 성경 읽기 계획표 등을 통해 삶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격: 10,000원

ESV - 1,000원 (별도판매)

성경의 이해를 돕는 자세한 해설

관주, 난외주, 절해설, 단락해설, 성서 속의 물건들 등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세한 해설 제공과 본문을 읽으면서 해설을 쉽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구현

차별화된 기능

성경 읽기 계획표 작성 기능
(상황별 진도 보기 지원) 및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맞춰 말씀이 재생되는 말씀 알람 기능

번역본별 성경 본문 및 성경 오디오 제공

개역개정판 성경을 포함한 9개의 번역본 및 역본별 대조 읽기, 절별 대조 읽기, 성경 오디오(개역개정, CEV) 제공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함께 나누기에 좋은 기본 기능

교독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수록
구절담기, 향광팬, SNS 공유, 메모, 사용자 보관함 활용 가능

다양한 자료 제공

성경 66권 개론, 성서 속의 단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서 속의 물건들, 이럴 때 이 말씀, 오늘의 말씀 등 제공



대한성서공회

구입문의: 02)2103-8791~2 / www.bskorea.or.kr

CONTENTS

2 모금소식

첫 번역 성경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냅니다! · 호재민

7 사람과 사람들

불교의 나라, 미얀마 소수민족을 위한 번역 · 조지윤

11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①

예수 믿는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수리아의 안디옥 · 장홍길

16 성서 속의 물건들 ⑤

“발등상/발울림대”, “땃들, 방앗간”

18 2012년 해외 성서 기증 계획

20 KBS 소식

예과도르에 500만 장의 전도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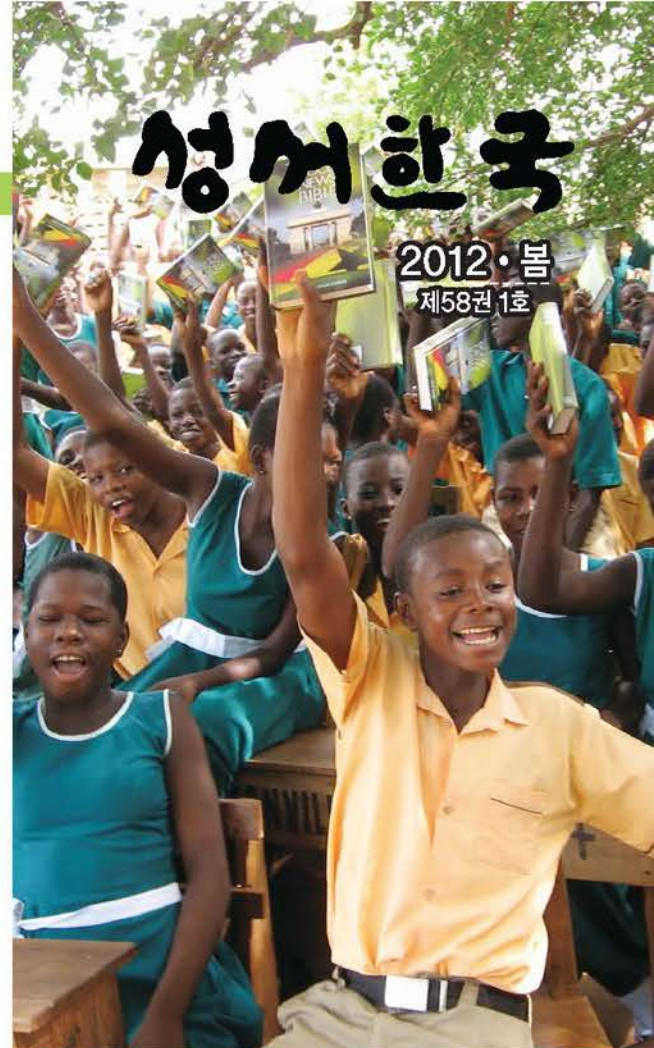
21 지구촌 소식

키리워니아 성경 봉헌식
아이티, 대지진 후 2년 지금은...

24 세계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성서한국

2012 · 봄
제58권 1호



· 발행인 겸 편집인: 권의현 · 발행처: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 팩스: 2103-8896

· 회원문의: 2103-8833-4 · 편집문의: 2103-8811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2103-8791-2

· 은행지표: 7511327 · 발행일: 2012년 3월 31일

· 인쇄인: 김현수 · 인쇄처: 삼립인쇄(주) · 편집: 디자인하우스 허늘

■<http://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본문과 성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성회원(후원, 가정, 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IJ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소와길원도 소년



단편 받고 즐거워 하는 가나 학생들

첫 번역 성경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냅시다!

호재민 (홍보진흥본부 본부장)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성경 번역
성경 본문이 중요한 까닭은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계시 행위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말씀을 새로운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두 세기 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성경 번역에서부터, 원문 성경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각종 자료들과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매체를 동원하여 수행하는 오늘날의 성경 번역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번역 작업은 하나님의 계시를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다. 그분과 만나고 또 그 말

씀을 실천하도록 하려고 그분의 메시지와 대화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 처음에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다음에는 글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의 말씀도 선물이다. 그들의 모국어로 표현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 번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의 전환

점을 맞이한 것은 성서운동을 통해서였다. 성서운동의 기본 정신 중의 하나는 '성경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04년 영국에서 성서공회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성서는 전 세계적으로 67개 언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성서공회 사역을 통해서, 1850년에는 200개 언어로, 1900

성경 없이 성경공부를 하는 세네갈 어린이들





1 카메룬 소녀들
2 콩고 소수민족 성경 번역자들
3 필리핀 어린이들
4 아이티 번역자들

년에는 500개 언어로, 1950년에는 1,000개 언어로 증가되었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 6,500여 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이라도 번역된 언어 수는 총 2,527개에 이른다. 이러한 성서공회 운동의 뿌리는 2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서공회 운동과 성경 번역

1792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한 가난한 어촌에 메리 존스(Mary Jones)라는 소녀가 살았다. 메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성경 말씀들을 너무나 좋아했다. 어린 메리는 성경을 가지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노인이 사는 이웃집에 땔나무를 주워 주기도 하고, 이웃 아주머니의 아기를 돌보아 주기도 하고,

샷바느질도 하고, 닭을 키워서 계란을 팔기도 하면서, 한푼 한푼씩 6년간 돈을 모았다. 메리는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지자, ‘빨라’라는 도시까지 75리 길을 걸어서 성경을 사러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웨일즈 말 성경은 살 수 없었다. 이전에 만든 것은 더 이상 없고, 언제 다시 성경



을 만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메리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찰스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싶어서 6년을 저축했다는 메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웨일즈 말 성경을 메리에게 내주었다. 1802년 12월에 찰스 목사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서회 회의에 참석해서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메리는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기를 원하는 웨일즈 백성의 간절한 요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전담하는 새로운 모임을 조직하기로 하였고, 1804년에 영국성서공회가 탄생하였다. 이것이 성서공회 운동의 시작이다.



성경 번역을 통하여...

성경 번역과 관련된 이론은 계속 발전되어 왔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은 원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과 아울러 번역문을 읽거나 듣는 이가 원문을 읽거나 들었던 이와 똑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여러 협력하는 단체들에서는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번역이란 단지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로 옮긴 그 메시지가 처음 읽거나 들었던 이들이 가졌던 반응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5월 당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였던 휘거스 맥도널드 목사는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 성서공회와 말씀 실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최고의 덕목이다.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 목적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작업 책임자인 네이즐 레베카는 성서공회가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성경과 맞닥뜨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하여 변화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전세계에는 아직도 최소한 단편으로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서를 읽을 수 없는 부족의 언어가 4,000여 개에 이르며,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의 언어 수는 3,300여 개에 이른다. 현재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성서공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읽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총 540개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글성서번역도 서구의 성서공회들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첫 번역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한글성서 번역과 한국교회

한글성서 첫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한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장로교 소속 존 로스(John Ross) 목사였다. 1876년경 중국 심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로스 목사는 이용찬이라는 한국인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1877년에 이용찬으로부터 배운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국어 초보」(Corean Primer)라는 한국어 문법서를 발간했다. 이즈음에 한글성서 번역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찬, 서상륜, 김진기 등의 한국인 번역자들이 대표자역본인 문리역 한문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로스 목사와 매킨타이어 목사가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번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완성했다.

번역된 성경을 인쇄하고 출판



하는 데에는 다시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 이 성경을 인쇄하기 위하여 로스 목사는 컬럼비아 데마이라는 인쇄기를 영국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또 일본에 한글 활자의 제작을 주문하였다. 로스 목사는 이 일을 위하여 인쇄 시설을 갖추



존 로스 선교사
예수성경전서(1887년)

었을 뿐만 아니라, 식자공(한국인) 1명, 인쇄공 2명, 번역자 1명, 한국인 학자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에서 이 일을 지원하여 주었다. 로스 목사는 당시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같이 부자가 아닌 사람은 시간과 정열과 정성을 쏟아 붓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재정을 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타 종이와 잉크 등의 비용도 드는데, 비록 과거에는 제 시간과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제 의무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제 봉급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동을 직접 들일 수 없는 기독교인 친구들이 가장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로스 목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단편 성서들을 출간하다가 1887년에 「예수성경전서」

라는 이름으로 신약전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보급된 데는 이처럼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등 다른 나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바탕에 있었다.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130여 년 전의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헌금을 한 것이 한글 성경이 되어서 조선 땅에 보급이 되었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던 한국인 번역자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권서가 되어 이 성경을 한국에 반포하였다. 1882년부터 1886년까지 2만 권에 가까운 성경과 기독교 소책자들이 보급이 되었으며, 이 성경을 읽고 많은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 성경은 초기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서울에서 본격적인 성경 번역과 인쇄 보급을 위한 성서공회 사업이 시작되었고, 1979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한국의 성서 사업은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는 본 공회가 전 세계의 성서 보급을 위하여 크게 지원하며 기여하고 있다.

첫 번역 성서 제작 지원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공회는 지난해 100만 불의 헌금을 지원하였고, 미얀마성서공회의 소수민족 첫 번역 프로젝트 5개를 지원하였다. 올해도 미얀마 소수민족 성경 번역을 계속 지원할 뿐 아니라, 성서 번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콩고, 세네갈, 모잠비크, 필리핀의 소수민족을 위하여 처음으로 번역된 성서 30,550부를 기증한다. 자신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읽게 될 이들을 돕는 사역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사람과 사람들

불교의 나라, 미얀마 소수민족을 위한 번역

조지 윤 (번역실 과장)

2011년 11월 28일-30일에 미얀마 양곤에 있는 미얀마성서공회 성서회관에서 자이와 구약 번역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치트라 체트리(Chitra Chhetri) 박사와 필자가 강의를 하였고, 미얀마성서공회 총무인 코람 탕(Khoi Lam Thang) 목사가 통역을 하였으며, 17명의 미얀마 소수 민족 번역자들과 감수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중에는 본 공회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5개의 번역 프로젝트 관계자들 중 파오 구약 번역자와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 작업자들이 있었다.

미얀마성서공회의 성서 보급 사역

승려들이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뿌리 깊은 불교 국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불교 전통 때문에 여성들도 대부분 긴 치마만 입고, 대부분의 남성들도 긴 치마같이 생긴 롱지를 입는다. 미얀마 인구는 약 5천 7백만 명(2011년 기준)인데, 미얀마 정부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구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이들 중 89.3% 가량이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은 5.6%에 불과하다.

현재 미얀마성서공회는 성경을 합법적으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배를 드릴 자유는 있으나 실제로 종교의 자유는 없다. 최근에 미얀마성서공회가 출간한 전도지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출간되었는데 그중에서 “죄”나 “진리”와 같은 80여 군데의 용어를 수정해야 했다. 버스 정류장이나 가게, 교회 등에서 전도지를 자유롭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전도지 초안을 보내야 하는데 정부의 종교 담당부에서 이것을 보고 어휘들을 수정하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소녀

미얀마성서공회는 전도지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미얀마 내에서 출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 국경에서 사람이 직접 걸어서 성경을 배달하거나 말을 타고 성경을 옮겨야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태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를 통해 트럭에 성경을 실어서 옮기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본 공회가 보낸 성경 32,000부도 태국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 성경을 양곤의 서점에서 반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미얀마 성서공회 총무인 코 램 탕 목사는 “미얀마에 성서공회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서점에는 몇 권의 성경만을 비치해 놓고 성경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곤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성경 번역을 요구하고 성경을 받기를 원한다.

본 공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을 위한 번역 프로젝트들

미얀마에는 135개의 소수민족과 200여 개의 부족어가 있다. 그러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성서(성경, 신약, 단편)가 번역된 언어는 약 65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얀마성서공회는 그러한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17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약, 신약, 스테디바이블, 개정 작업들이 있다. 그 중 5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본 공회가 지원하고 있다.

본 공회에서는 2011년 한글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번역 사업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미얀마의 파오 구약(Paoh OT), 쿠미 친 구약(Khumi Chin OT), 하와 나가 구약(Hawa Naga OT), 쿠알심 신약(Khualsim NT), 라시드 신약 해설 성경(Lacid NT Study Bible)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미얀마 국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첫 번역 프로젝트들이다.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미얀마 산주(州)에 사는 소수 민족인 파오인들을 위한 구약 번역 프로젝트는 본 공회 번역실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다.

파오어 “하나님”은 “부에 파라”, “부처”와 같은 어원

파오인 전체 인구는 150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뿌리 깊은 불교인들로, 기독교인은 1%도 안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파오어로 “하나님”은 “부에 파라”(Bwe Pharah)인데 “주인”이라는 의미의 “부에”(Bwe)에 “부처”와 어원이 같은 “파라”(Pharah)를 합성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 하나님”의 경우에는 “주인 부처”에 “영원한”을 합성한 “부에 타우라 파라”(Bwe thawahrah Pharah)라고 부른다. 이러한 하나님 이름은 파오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파오어로 구약을 처음 번역하다 보니 구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의 음역이 문제가 되었다. 파오어로 된 구약은 없지만 버마어를 아는 목회자들이 버마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서 파오 부족들에게는 버마어로 된 이름들이 익숙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구약 본문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음역할 때 우리말 번역처럼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음역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인명인 “하갈”이나 지명인 “술” 혹은 “에스콜”처럼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하가라”나 “수르”, “에쉬아콜라”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파오 부족들에게 익숙한 음역으로 결정을 하였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지침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원어를 음역하기보다는 독자들이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음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음역을 결정해 나가고 음역 결정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도록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번역의 통일성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음주를 금지하다보니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라는 모든 부분을 일괄적



1 미얀마성서공회 성서회관의 서점

2 미얀마 파오 성경 번역을 위한 컨설팅 과정 - 필자(왼쪽)와 파오 성경 번역자 쿤 바 산 목사(오른쪽)





미얀마성서교회 총무인 코 램 탕 목사

으로 “포도 주스”로 번역하는데, 그러다보니 창세기 9장 21절에서 “노아”가 “포도 주스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번역한 본문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번역자에게 본문 맥락을 다시 설명하여 감수자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한 절 한 절 번역을 점검해나갈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히브리어 원문이나 다른 영어 역본들과 버마어 번역을 살펴서 번역을 재검토하고 이를 감수 위원들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였다.

파오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어려움

파오 구약 번역 과정도 쉽지는 않지만, 그 전의 파오 신약 번역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에 걸쳐 두 명의 번역자가 진행했던 신약 번역은 번역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산되고 1997년에 지금 파오 구약 번역자인 쿤 바 산(Khun Ba San) 목사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5년만인 2004년에 번역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파오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제공하는 번역, 조판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에서 파오어가 구현되지 않아서 2009년까지 출판이 연기되었다.

쿤 바 산 목사는 자신이 손으로 써서 번역한 파오 신약과 조판된 원고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1년이면 몇 차례씩 미얀마성서공회를 방문

하곤 하였다. 한 번 을 때마다 12시간씩 버스를 타고 왔으나 번역 프로젝트 지원금이 없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양곤까지 와야 했다.

목사가 된지 40년이 넘는 쿤 바 산 목사는 아직도 컴퓨터가 없어서 손으로 번역 원고를 쓴다. 파오인들 중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 금액이 일반 직장인 봉급의 1년치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파오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서 타이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나 타이핑한 것을 번역자가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본 공회에서는 번역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번역자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 번역 전문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를 활용하여 번역을 할 경우 번역의 질도 향상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이다.

현재 번역자는 오경을 번역하는 중이며 4명의 감수자가 출애굽기를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본 공회 번역실에서는 창세기 번역 컨설팅을 끝낸 상태이다. 파오 구약이 완성되면 파오 신약 점검도 함께 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묶어 파오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쿤 바 산 목사는 파오 구약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본 공회와 한국 교회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고 하였다.

코 램 탕 총무 또한 미얀마성서교회 전체 프로젝트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는 본 공회와 한국 교회에 감사하며, 매 주 월요일 아침 직원 예배 때 한국의 교회들과 본 공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였다. 미얀마 소수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



예수 믿는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수리아의 안디옥

장 흥 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에는 동일한 지명으로 서로 다른 두 곳이 언급된다. 그 하나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이고(행 11:20 등),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행 13:14 등)이다. 고대의 안디옥은 성경에 언급된 곳 외에도 여러 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안디옥’ 은 ‘안티오쿠스’ (Antiochus)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로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안티오쿠스는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 ‘셀류키스 I 세’ (Seleucus I Nicator)의 부친이었다. 셀류시드 왕가의 여러 왕들은, 알렉산더가 자신을 기념하여 정복지, 여러 곳에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던 것처럼, 안티오쿠스를 기념하여 제국의 여러 곳에 동일한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였다. 현재 터키 영토로 시리아와 접경 지역인 하타이(Hatay) 지방에 있는 안디옥(현 지명은 안타키아)은 다른 곳에 있는 안디옥과 구별하여, 일반적으로는 ‘오론텐스(Orontes) 강변의 안디옥’으로 불린다.

원래 이 도시는 구약에 언급된 아람 왕국 시절

부터 있던 고대 도시는 아니었다. 주전 301년 셀류커스 I 세가 알렉산더 사후 안티고니드 왕조를 세웠던 안티고누스(Antigonos)를 입수스(Ipsus)에서 물리친 후, 지중해안 오론텐스 강 어구에 항구 도시 '실루기아 피에리아'(Seleucia Pieria)를 세웠다. 이듬해, 그는 여기서 내륙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오론텐스 강변에 안디옥을 건설하였다.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 주전 64년~주후 25년)의 『지리학』(16.2.5)에 의하면, 셀류커스 I 세는 수리아 지방의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에 네 개의

Siculus)의 『사기』(17.52)에 의하면, 당시 안디옥의 인구는 자유인만 약 30만 명에 달하였다. 또 신약 당시 로마 작가이자 자연사가인 플리니(Pliny the Elder, 주후 23-79년)의 『자연사』(6.122)에 의하면, 그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로써 대개 1세기 당시 안디옥의 인구를 50-60만 명 정도로 여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많이 거주했던 것은 도시 건립에 따른 셀류커스 I 세의 이주 정책에 서 비롯되었다. 곧 셀류커스는 안디옥을 세운 후

에 이곳에 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행 11:19)도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피신한 자들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도시에서 전도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수리아의 안디옥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으로는, 이곳 출신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6:5; 11:19-24, 25-26, 27-30; 13:1-3; 14:26-28; 15:22-29, 30-35; 18:22-23)과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2:11-14), 그리고 디모데후서

다. 둘째, 안디옥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의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진 역사적 장소였다. 스테반 선교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구브로와 구레네로 갔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헬라인에게도 전도하여 믿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복음 사역을 하게 했다(11:19-24). 이로써 안디옥은 이방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셋째, 안디옥은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 함께 사역함으로써, 제자들이 외부인에 의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기독교



베드로 암굴 교회



베드로 암굴 교회 바닥 모자이크



안디옥 모자이크 박물관

도시를 세웠다. 그 중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은 부친의 이름을 따라 명명하였고, 항구에 건설한 요새 도시 '실루기아'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렸으며, 나머지 두 도시 '아파마'(Apameia)와 '라오디케이'(Laodiceia)는 각각 그 아내와 모친의 이름을 붙여 명명하였다.

바울 당시 이 도시는 수리아 지방의 수도(首都)였으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다. 주전 1세기 그리스 고대사가 '디오도루스 시쿨루스'(Diodorus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이 도시에 살게 하였는데,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마게도나의 퇴역 군인, 아테네에서 이주해온 식민인, 그리고 유대인이었다(H. F. Vos, Wycliffe Historical Geography of Bible Lands, 2003, 405). 메츠거(B. M. Metzger)에 의하면, 신약 당시 이 도시에 살던 사람 일곱 명 중 한 명은 유대인이었다. 이처럼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의 순교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외

(3:11)를 들 수 있다. 이 구절들에 나타난 안디옥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을 살펴보자. 첫째, 이 도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위한 일상 구제의 일을 위해 택한 일곱 일꾼 중 한 사람인 니콜라의 고향이었다(6:5). 그 헬라식 이름을 감안하면, 니콜라는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이전에는 유대교 개종자였다. 그는 1세기 말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오후하여 간음을 일삼은 '니콜라당'(계 2:6)에게 거짓으로 추앙을 받기도 하였

신앙의 중심지였다(11:25-26). 넷째, 안디옥은 기독교 선지자 아가보가 글라우디오 황제(41-54년 통치)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날 흉년을 예고한 곳이기도 하다(11:27-30). 다섯째, 안디옥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던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다(14:26-29).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회의에 참석하여 이방 선교에서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떨어버리는 중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들이었다(15:22-35). 또한 이 도시는 이들

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보고한 장소이며 (14:26-28),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 후 세 번째 선교 여행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었다(18:22-23). 이처럼, 안디옥은 바울에게 실질적인 이방 선교의 전략 중심지였다.

바울서신에서도 안디옥과 관련된 본문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2:11-14)에서 그러하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사도회의를 한 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답방으로 대표단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는데, 이때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이 갈라디아서에 묘사되어 있다. 먼저 안디옥에 이른 베드로 일행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르러 이 장면을 목격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났고 그와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났다. 이를 목격한 바울은 베드로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물러난 행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유대적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것임을 강하게 책망하였다. 이로써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 입장이 정립되고 그 발판을 마련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 또 후기바울서신인 디모데후서(3:11)에도 이 도시가 언급되었는데, 이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받았던 박해를 언급하였다.

또 안디옥은 마태가 유대인과 이방인 선교를 함께 실천한 공동체를 위해 저술한 복음서의 저작 장소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내의 많

은 유대 기독교 전승들과 저작 장소 추정 구절(4:24), 또 1세기 말 기독교 문서로 열두 사도 교훈서인 디다케(Didache)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신이 제시된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후 4세기 초 교회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의 『교회사』(3.36.2)에 의하면, 이 교회 최초의 감독이 베드로였고, 트라야 황제(Trajan, 주후 98-117년 재위) 때 순교한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안디옥 교회의 세



실루기아 항구



실루기아 항구 기념물

번째 감독이었다(3.32). 2세기 후반에는 여러 영지주의 이단들(Menander, Saturninus, Cerdon, Tatian)이 여기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런 이단의 활동에 대하여 주후 180년경 테오필루스(Theophilus)는 기독교 변증서를 저술하였는데, 이 저술 역시 유대적이면서 이방적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도시의 고대 유적은 그 서편의 오르테스 강과 동편의 실피우스(Silpius) 산 사이에서 발견되

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안디옥은 네 차례 확장되었다. 곧, 이 도시는 셀류커스 1세에 의해 그 제1지구가 처음 건설된 후, 다시 제2지구로 확장되었고, 셀류커스 II세(주전 247-226년)와 안티오쿠스 III세(주전 223-187년) 때 제3지구인 오르테스 강의 섬에 궁전과 대경주장 및 전차경기장이 건설되었다. 그 후, 안티오쿠스 IV세 에피파네스(주전 175-163년)에 의해 네 번째 지구가 확장되었다. 로마 시대 아우구도(Augustus)와 디베

료(Tiberius) 황제는 대(大) 해룻의 도움을 받아 이 성 안에 주전 23년-주후 37년 궁전, 극장, 열주로, 원형극장, 수로 등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지진 등으로 인해 일부 유적만이 남아 있다. 1910년 이곳에서 이중 구조로 된 '은제(銀製) 성배(聖杯)'가 발견되었는데, 내부의 잔은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한 성배로 전해지나 확실치 않으며, 외부의 잔은 2-6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의 동북편 스타우리스(Stauris) 산 서쪽 사

면에 길이 13m, 폭 9.5m, 높이 7m의 큰 굴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후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던 '베드로의 굴'로 전해진다. 십자군이 이 도시를 점령했던 1098년, 이 굴을 좀 더 파고 입구 양쪽에 두 개의 아치를 세워 기념교회로 삼았다. 현재의 교회는 1863년 프란시스코 교단의 카푸친(Capuchin) 수도회가 세운 것이다. 현재 도시 중심에 고대 안디옥과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주택 바닥 모자이크 등의 유물을 전시하는 하타이(Hatay) 박물관이 있다. 아쉽게도 이 모자이크는 신약 당시보다 몇 세기 뒤의 것이다. 이곳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변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출입했던 고대 항구 실루기아가 현재 사만다의 근처에 위치해 있다(행 13:4; 14:26). 실루기아는 현 지명으로는 '제브릭'으로 불린다.

요약하면, 고대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에 세워진 수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의향인 실루기아와 함께 육로와 해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여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였다. 특히, 이 도시는 헬라의 문화와 학문 및 종교가 번성했던 도시였으며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유대인 선교나 이방인 선교에 적절한 기독교 선교의 전략적 요지였다. 특히, 이 도시의 헬라적 학풍은 바울이나 후대 교부들의 역사적 성경해석에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안디옥은 바울 당시 로마 제국 내 수리아 지방의 수도이자 군사, 교통, 무역, 학문적 대도시로서 초기 기독교 열방 선교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

footstool

발등상 / 발올림대



이집트인의 발등상

생김새와 쓰임새

발등상은 사람이 발을 올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가구였다. 그것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발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낮은 결상 모양이었다.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집트인의 발등상은 이집트 왕이 정복한 적들을 실제로 묘사해 놓은 것이었다.

번역

발등상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공통된 문화적 특징이다. 번역자들은 ‘발을 올려놓아 쉬게 하는 물건’ 따위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언어에서는 ‘발등상’의 기능적 대등어는 ‘발막대기’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집이나 오두막집의 비교적 축축하고 더러운 바닥으로부터 발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평소에 발을 올려놓는 막대기이다.

성서 속의 물건들 ⑤

약 2:3을 제외하고는 그리스어 낱말 ‘후포포디온’은 신약에서 상징(figure)으로만 나타난다. 대다수의 번역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눅 20:43에서 GNT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너의 발 밑에 놓을 때까지”로 번역하며, NCV는 그것을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지배 아래에 둘 때까지”라고 사실적으로 번역한다. 약 2:3에서 ‘후포포디온’은 실제의 발등상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주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여 그를 모욕한다.



발등상 위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는 사람

millstones, mill

맷돌, 방앗간

생김새와 쓰임새

맷돌은 두 개의 납작한 돌을 포개어 놓고 윗돌을 아랫돌에 문질러서 그 사이에 넣은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기물이었다. 곡물을 고정된 아랫돌 위에 올려놓고, 윗돌로 곡물의 위를 눌러 앞뒤로 문질러서 곡물을 가루로 갈았다. 가루를 만드는 일은 일상적으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여인들이 담당했다. 그것은 고된 일이었으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5인 가족의 빵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양의 밀가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여인이 매일 세 시간 이상 맷돌을 갈아야만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른 아침 기름등잔의 불빛에 의지해 맷돌 가는 소리는 안정과 안전을 상징했다. 렘 25:10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곧 돌이 닦칠 비극을 서술한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인용한 말씀으로 “내가 그들에게서 ... 맷돌질 소리와 등불 빛을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이와 동일한 유형의 맷돌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둥근 형태의 맷돌도 사용되었다. 유형의 맷돌은 윗돌과 아랫돌이

필수적으로 같은 크기였으며 윗돌을 아랫돌 위에서 돌리는 것이었다. 곡물은 윗돌의 가운데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맷돌 속으로 부어 넣었다. 윗돌이 회전하는 동안에 두 돌이 맞닿은 가장자리 둘레로부터 곡물 가루가 차츰차츰 흘러나왔다. 맷돌들 중에는 비교적 작아서 손으로 작동하는 것들도 얼마쯤 있었고 달리 아주 커서 윗돌을 돌리는 데 동물이 사용되는 것들도 있었다.

맷돌은 고대에 사용되던 것과 일반적 구조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의 비교적 크고 평평한 돌을 아래위로 포개놓았고, 그 두 돌 사이에 곡물을 넣고 가루로 갈았다.

번역

대다수의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돌의 엄청난 크기가 곡물을 가는 그 기능이지 꼭 맷돌의 특정한 형태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에 맷돌을 매달아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 문맥에서는(마 18:6 막 9:42 눅 17:2), 사람을 곧바로 가라앉게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돌을 가리킨다는 것이 중요하다. ㉑



손맷돌



후기의 맷돌



손맷돌로 곡물을 가는 여자

2012년 해외 성서 기증 계획

International Scriptures Donation Program



- 12개국에 88,750부의 성서를 기증하고
번역 사역을 지원 (총 약 3억 7천만 원) -

① 터키	마르디니어 아랍어 대조 신약	5,000부
② 필리핀	수르요어 아랍어 대조 신약	5,000부
③ 세네갈	파라난어 신약	3,050부
④ 콩고민주공화국	눈어 신약	2,500부
⑤ 모잠비크	음반자어 성경	10,000부
⑥ 페루	세나어 신약	5,000부
⑦ 가나	스페인어 성경	14,600부
⑧ 토고	새 에웨어 성경	7,000부
⑨ 모리셔스	새 에웨어 성경	3,000부
⑩ 나이지리아	크레올어 신약	5,100부
⑪ 베넹	영어 성경	27,500부
⑫ 미얀마	폰어 성경	1,000부
	5개 소수민족 번역 프로젝트 지원	US\$22,109

후원문의 : 080-374-3061



에콰도르에 500만 장의 전도지 보급



2012년 2월 28일에 페루에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선 선교사(재아사랑선교회)로부터 본 공회로 감사 편지가 도착하였다. 재아사랑선교회는 1990년부터 성경과 전도지, 말씀 책자 등 1억 5천만 개를 중남미 12개 나라에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1억 5천만 개 중 8천 5백만 개를 본 공회가 제작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김영선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도지는 성경의 축소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 전하는 최상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지 한 장이 선교사 한 사람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 중 전도지를 전하는 사역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특히 김영선 선교사는 금년 초에 본 공회에서 제작하여 보급한 전도지 500만 장을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에콰도르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 28일부터 3주간 대도시에서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키리위나어 성경 봉헌식

2012년 2월 8일 키리위나어 성경 봉헌식이 남태평양 트로브리안(Trobian) 군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키리위나 성경의 번역자, 랄프 로튼 목사와 그의 아내 마가렛은 이 성경이 출판될 수 있도록 조판에서부터 편집,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한 본 공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 날 거행된 봉헌식의 감동을 전해왔다.

호주 출신인 로튼 목사는 1962년에 성경을 키리위나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아내 마가렛은 태평양 지역의 여러 언어로 성경을 편집하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번역이 마무리된 키리위나어 성경 출간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을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이들이 특히 감사한 것은 대한성서공회가 50년 동안 이 사역에 매진해온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헌신적으로 모든 출판 과정에 임해준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대한성서공회의 협조로 수십 년 동안 태평양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편집해온 마가렛의 경험과 노하우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히 성경을 조판하였고, 키리위나 사람들이 봉헌식 일정을 축하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봉헌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성경을 제작, 보급하여 이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로튼 부부가 들고 있는 키리위나어 성경 표지에는 키리위나 사람들이 야ם을 보관하는 저장소 그림이 찍혀있다. 야ם(yam)은 마과에 속하는 식물로 키리위나 사람들의 주식이다. 로튼 목사 부부는 봉헌식 당일에도 이 야ם 저장소에 성경을 싣고 봉헌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빵임을 키리위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야ם 저장소에 키리위나어 성경을 싣고
진행한 봉헌식



본 공회가 제작한 키리위나어 성경을 들고 있는
번역자 랄프 로튼 목사와 그의 아내 마가렛

아이티, 대지진 후 2년 지금은...

아이티성서교회 마그다 빅터 총무는 최근, 2010년에 있었던 최악의 지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빅터 총무는 성서교회들의 사역과 협력 기관들의 도움이 아이티인들의 마음에 소망을 전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지난 2010년 1월 12일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은 약 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또 다른 20만 명의 사람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지진 이전에도 아이티는 삶의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다. 바로 이러한 나라에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집을 잃어버렸으며, 수 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은 기회가 되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많은 아이티인들이 성경 메시지를 소망의 근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크고 작은 성서교회들의 기도와 재정 지원의 결과로 아이티성서교회는 지진 이후로 20만 권이 넘는 성경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모든 라디오 방송국은 아침에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이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기초로 이해하려고 하는 한편 이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의 기초를 찾으려 하고 있다.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켰고, 아이티에서



는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직도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다.

빅터 총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서교회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꾸고, 우리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슴 뭉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상황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진행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 우린 쉽게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한 때에 이루어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는 그 계획의 일부가 아이티 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규모로 반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티에서 성경 보급의 미래는 빛이 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깨울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지진은 나무의 뿌리를 뽑을 수 있지만 또한 그 뿌리가 땅으로 더 깊이 박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티성서교회 마그다 빅터 총무

본 공회에서는 아이티 크레올어로 된 성경을 아이티성서교회를 통해 아이티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의 협력으로 성경 8,000부(2010년 3월 11일), 2회에 걸친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후원으로 성경 22,100부(2010년 6월 1일, 2011년 3월 11일), 또 찬송가 10,500부(2011년 10월 26일)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



세계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모잠비크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이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6개의 번역 프로젝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TAZ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촌 문맹 퇴치 프로그램과 오디오

성경 프로그램인 FCBH(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우리와 함께 협력할 교회 지도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역과 직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리아어로 된 학문용 편집 시편의 출판과 다양한 도서 박람회와 이슬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터키어 성경 사전 작업과 쿠르드어 구약성서의 번역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터키 내의 교회들이 더 많이 화합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네갈 오디오 성서 출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맹 퇴치 프로그램 및 새로이 시작할 프로젝트들과 대한성서공회가 기증한 눈(Noon) 신약 성서 보급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키송제어와 음반자어 성서 출판과 과부, 고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와 군인들을 위한 성서 반포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라의 정치적인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2 해외 성서 기증 프로그램



지금!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이웃들에게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료하고 궁극적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5개국
총 30,550부



성서 기증 프로젝트 6개국
총 58,200부



미얀마 소수민족 번역 프로젝트 지원
5개 소수민족



세계 성서운동 지원 (약 11억 원): 세계 성서번역 및 출판 보급 지원

2012 해외 성서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참나, 개인 또는 단체(교회 등) 명의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둘, 기증하고자 하는 나라를 정하여 기증을 희망하는 부수만큼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셋, 본 공회의 계좌를 통해 직접 보내시고자 하는 경우는 홍보진흥본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